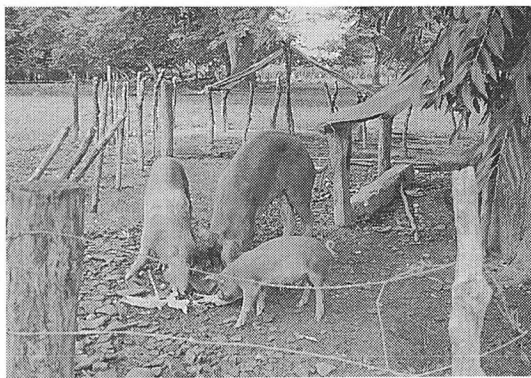


온두라스의 양돈개발



1. 품종은 불분명(크리오코라고 부른다)
모돈의 크기는 80kg, 자돈은 5kg 정도이다.
1호당 1~2두사육이 80% 이상을 차지한다.
방책도 없이 놓아 기르는 것이 대부분이다.
이 돼지들은 도로 옆에서 수유중이다.
배합사료 등은 없이 풀 등을 먹인다.



2. 비닐을 이용한 휴식처
사육되고 있는 것은 D?



3. 비닐을 이용한 휴식처
유자철선으로 방책을 만들었다.

온두라스는 면적 약 11억2,000만km²(한반도의 약 1/2), 인구는 약 483만명(1988년), 수도는 티그시갈바이며 기후는 해안부(태평양, 카리브해)가 고온다습한 열대성인 데 반해 고원지대(수도는 표고 4,000m)는 비교적 견딜만 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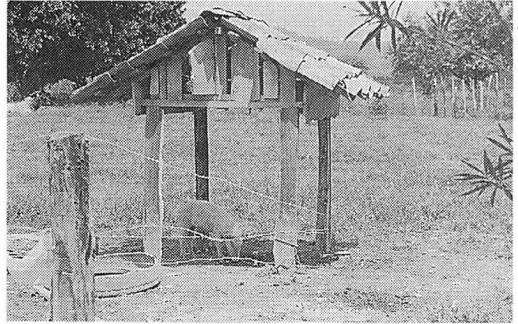
온두라스국은 양돈가들은 크리오코돈(재래종)을 사육하는 소규모농가와 개량종을 사육하는 중~대규모 농가의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다. 소규모층(전체의 약 80%)에서는 앞마당에서 1~3마리의 크리오코돈을 잔반이나 농장찌꺼기 및 잡초 등으로 사육하고 있다. 한편 중규모층 이상에서는 돈사 등 시설에서 배합사료를 위주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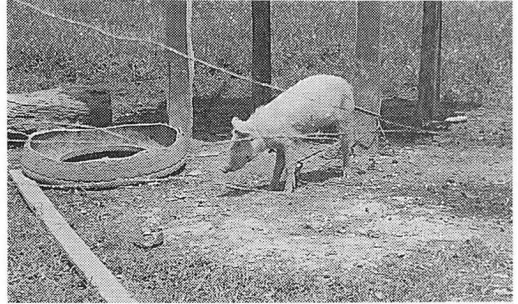
계획과 양돈 현황

농장찌꺼기 등으로 구미종간의 교잡종을 사육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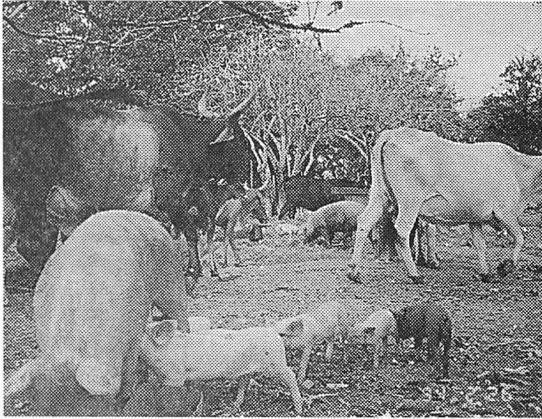
온두라스 정부는 일본에 대해 양돈개발계획에 관한 프로젝트방식 기술협력요청을 했는데, 일본은 국제협력사업단(JICA)이 사전조사 등을 실시한 후 1994년 5월부터 大石 단장 외 3명의 양돈 전문가를 파견하여 온두라스국 오란쵸현 카타카마스시(수도에서 약 240km)에 있는 국립농업교교(ENA) 부지내에서 종용돈 20마리, 종빈돈 100마리 규모의 시설을 건설하고 구미종 도입에 의한 종돈의 개량증식, 양돈기술자의 양성 및 양돈농가의 기술지도를 실시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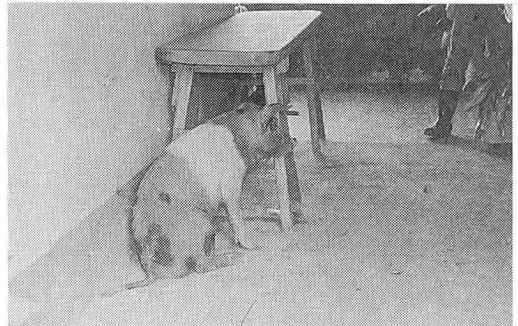
5. 땅을 파서 세운 오두막 돈사? 휴식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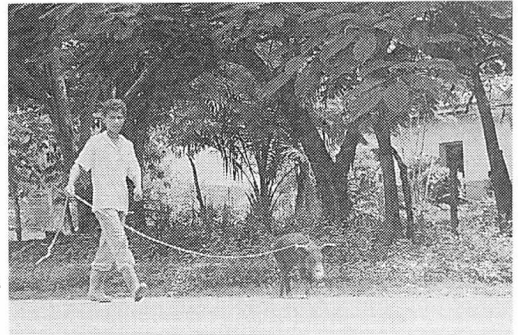
6. 사조는 오래된 타일을 이용, 품종은 LW?



4. 품종은 L, W, D의 교잡종으로 생각된다.
이 농가는 돈사시설이 있지만 대개는 소와 혼사방목하고 있다.
방책은 목재 등을 사용한 간단한 것
옥수수 등을 소량 급여하고 있다.



7. 실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



8. 머리에 새끼줄을 묶어
방사장(숲속)으로 향해진다.
품종은 크리오코(?)